



1919년 2월 8일, 東京に留学していた朝鮮人学生たちが行った2・8独立宣言を記念して造られた資料室。

在日本韓国YMCA創立100周年記念事業として、国家報勲処の支援により、2008年5月にYMCA会館10階にオープンした。

「1910年代の在日本朝鮮人留学生」、「日本による朝鮮侵略」、「2・8独立宣言」、「2・8独立宣言の胎動」、「3・1独立運動」、「運動の広がりと協力者たち」、「関東大震災と朝鮮人虐殺」、「真相究明に向けた努力」、「未来に向けて」の順に、当時の朝鮮人留学生たちが独立宣言を発表するまでの経緯や運動の展開過程、韓国国内での3・1独立運動に与えた影響などの資料が展示されている。

また、独立宣言の署名者たち<金度演(キム・ドヨン)、金尚徳(キム・サンドク)、金喆寿(キム・チョルス)、白寛洙(ペク・グァンス)、徐椿(ソ・チュン)、宋繼白(ソン・グベク)、尹昌錫(ユン・チャンソク)、李光洙(イ・グァンス)、李琮根(イ・ジョングン)、崔謹愚(チェ・グンウ)、崔八鏞(チェ・パリョン)>の写真や、学生たちの動向を伝える当時の新聞、関連書籍が紹介されている。

★ 방문을 희망하시는 분은 반드시 사전에 전화 또는 메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訪問をご希望の方は、必ず事前に電話またはメールでお申し込みください。



이 안내서는 배우 송혜교와 성진여대 서경덕 교수의 후원으로 제작하였습니다.
この案内書は、女優のソン・ヘギョさんと誠信(ソンシン)女大のソ・ギョンドク教授の協力で作したものです。

해외에서 만난 우리역사 이야기 [도쿄편]

海外で出会う韓国歴史物語 [東京編]

- 2・8 독립선언 기념자료실
- 이봉창의사 투탄 의거지, 이봉창의사 순국지
- 신간회 도쿄지회 창립지
-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저택
- 2・8 독립선언 기념자료실
- 李奉昌義士義拳の地、李奉昌義士殉国の地
- 新幹会東京支会創立の地
- 大韓帝国最後の皇太子英親王(李垞)の邸宅



2・8 독립선언 기념자료실 2・8独立宣言記念資料室

주소 : 도쿄도 치요다구 사루가쿠초 2-5-5 (재일본한국YMCA회관 10층)
住所 : 東京都千代田区猿樂町2-5-5 (在日本韓国YMCA会館10階)



1919년 2월 8일 일본 동경 한국유학생 대표들이 진행한 2·8 독립 선언을 기념하여 기념자료실을 만든 곳이다.

재일본 한국YMCA 창립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국가보훈처의 지원을 받아 2008년 5월 회관 10층에 2·8 독립선언 기념자료실을 개관하였다.

자료실에서는 ‘1910년대 재일본 조선 유학생’, ‘일본에 의한 조선 침략’, ‘2·8 독립선언’, ‘2·8 독립선언의 태동’, ‘3·1 독립운동’, ‘운동의 확대와 협력자들’,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 ‘미래를 향해서’의 순서로, 당시의 한국 유학생들이 독립 선언을 작성하고 발표하기까지의 경위와 운동의 전개과정, 국내 3·1운동에 미친 영향 등의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또한 독립선언서 서명자들(김도연, 김상덕, 김철수, 백관수, 서춘, 송계백, 윤창석, 이광수, 이종근, 최근우, 최팔용)의 사진, 학생들의 동향을 알려주는 당시의 신문 자료와 관련 서적들도 있다.

이봉창의사 투탄 의거지

李奉昌(イ・ボンチャン)義士義拳の地



주소 : 도쿄도 치요다구 경시청 앞
住所 : 東京都千代田区警視庁前



이봉창의사(1900~1932)는 서울 출신으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31년 12월 김구의 한국애국단에 가입하였다. 1932년 1월 8일 이봉창의사는 도쿄 교외에서 거행된 신년 관병식을 마치고 궁으로 들어가는 일왕 히로히토(裕仁)를 향해 경시청 앞에서 폭탄을 던졌다. 폭탄은 히로히토를 폭사시키는 데는 실패하였지만, 궁내 대신이 탄 마차 옆에서 폭발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이봉창의사의 의거는 일본 식민통치의 부당성과 한국의 독립을 전 세계에 외친 쾌거였다. 또한 일본의 권위를 국제적으로 훼손하기에 충분했음은 물론이며, 한국독립운동을 크게 고무시켰다. 당시 이봉창의사가 폭탄을 투척했던 곳은 현재 왕궁 사쿠라다문과 일본 경시청 건물 사이의 6차선 도로로 추정된다.

李奉昌(イ・ボンチャン)義士はソウルで生まれ育ち、普通学校を卒業したのち1931年12月に金九(キム・グ)が率いる韓国愛国団に加わった。1932年1月8日、警視庁の前で、東京市外で行われた観兵式から帰る天皇裕仁に向かって手榴弾を投げた。天皇暗殺には失敗したが、手榴弾は宮内大臣が乗っていた馬車のすぐそばで爆発し、世界を驚かせた。(桜田門事件)
李奉昌(イ・ボンチャン)義士の義拳は、日本による統治の不当性と韓国の独立に向けた強い意志を世界に訴える出来事となった。また、日本の権威を国際的に失墜させる効果を得ただけでなく、独立運動に向けた機運を一気に高めた。当時、李奉昌(イ・ボンチャン)義士が手榴弾を投げた場所は、現在の皇居の桜田門と警視庁の建物の間の、6車線道路と推定されている。

이봉창의사 순국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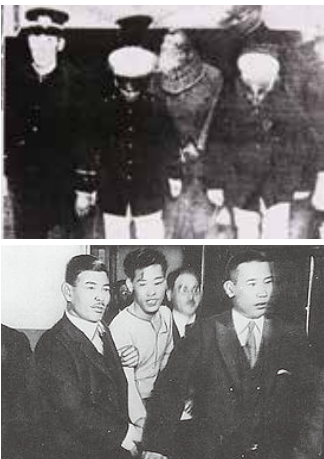
李奉昌(イ・ボンチャン)義士殉国の地



주소 : 도쿄도 신주쿠구 요츠마치 4 요츠마치놀이터 내
住所 : 東京都新宿区余丁町4 余丁町児童遊園内

이봉창의사는 1932년 1월 8일 도쿄 일본경시청 앞에서 일왕에게 폭탄을 투척하는 의거를 일으킨 후 일제에 체포되어 이치가야 교도소에서 사형 처분을 받고 순국 하였다. 현재 이치가야 교도소는 없어지고 주택단지로 변하였는데, 당시 사형장 터로 보이는 어린이놀이터의 한구석에는 1964년 일본 변호사연합회에서 세운 '형사자 위령탑'이라는 비석만이 남아있다. 이 교도소는 이봉창의사만이 아니라 김지섭·박열 의사 등이 수형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이 일대는 신주쿠 도심지와 멀지 않고 와세다대학교도 가까워 재일한국인과 유학생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李奉昌(イ・ボンチャン)義士は、1932年1月8日に警視庁前で天皇に手榴弾を投げた後、現場で逮捕され、市ヶ谷刑務所で処刑された。現在、市ヶ谷刑務所はなくなり、団地に変わっている。また、跡地の一部は児童公園となっており、当時の死刑場跡とみられる公園内の片隅には、1964年に日本弁護士連合会が建てた「刑死者慰霊碑」が残っている。この刑務所では、李奉昌(イ・ボンチャン)義士以外にも、金祖燮(キム・ジンソプ)や朴烈(パク・ヨル)などが服役した。この一帯は新宿から近く、近隣に早稲田大学もあり、在日韓国人と留学生が多数居住している



신간회 도쿄지회 창립지

新幹会東京支会創立の地



주소 : 도쿄도 신주쿠구 와세다초 와세다대학 스콧홀
住所 :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



신간회 도쿄지회는 1927년 5월 7일 전진한·임태호 등의 주도로 와세다대학 스콧홀에서 창립되었다. 회원은 1929년 당시 253명에 달하였다. 신간회에서는 조선 총독 폭압 정치반대투쟁을 비롯하여 학살된 동포추도회, 국치일기념 항의투쟁 등을 전개하였다. 1928년 8월 29일 국치일에는 도쿄의 신주쿠에서 조선공산당 일본총국 등과 함께 “전 민족적 대중투쟁을 통하여 신간회를 확립하자. 조선총독을 타도하자. 조선민족해방만세” 등의 전단을 살포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 일로 지회장 김동훈 등 간부 2명이 체포되었다. 신간회는 도쿄 이외에도 오사카와 교토, 나고야에도 지회를 설치하여 활동하였다. 현재 와세다대학 구내에 있는 건물로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新幹会東京支会は、1927年5月7日に錢鎮漢(チョン・ジンハン)、林泰虎(イム・テホ)などの主導で設立され、早稲田のスコットホールで設立大会が開かれた。会員は、1929年には253人になった。同会では、朝鮮総督暴圧政治反対闘争をはじめ、虐殺された同胞の追悼会、国恥日記念抗議闘争などを展開した。1928年8月29日の国恥日(1910年8月29日、韓日併合条約発効)には、東京新宿で朝鮮共產党日本総局などと共に「全民族の大衆闘争を通じて新幹会を確立しよう。朝鮮総督を倒そう。朝鮮民族解放万歳」などと記されたチラシを散布し、デモを展開した。このデモで、支会長の金東訓(キム・ドンフン)など幹部2人が逮捕された。新幹会は、東京のほか、大阪と京都、名古屋にも支会を設置し、活動した。スコットホールは、今も早稲田大学近隣にあり、原型をとどめたまま保存されている。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저택

大韓帝国最後の皇太子英親王の邸宅



주소 : 도쿄도 치요다구 기오이초 1-2
住所 : 東京都千代田区紀尾井町丁1-2

영친왕 이은(1897~1970)은 고종의 일곱째 아들로 1907년 형인 순종이 즉위한 뒤 황태자가 되었지만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유학이라는 명목 하에 일본으로 강제로 데려갔다. 일본 왕족인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한국 이름 이방자)와 정략결혼을 한 후, 일본군 장교로 살다, 1926년 순종이 죽고 제 2대 이왕으로 즉위를 하였으나 곧바로 다시 일본으로 보내졌다. 1963년 11월 22일 한국으로 귀국하였지만 병세가 악화되어 1970년 5월 1일에 사망하였다. 이 저택은 1930년에 건축된 영친왕의 일본 거처이며, 일본 공내성의 키타무라코조, 콘도 요오키치가 서양식으로 설계해서 건축한 저택이다. 일제패망 후 일본 참의원 의장 관저로 사용되다, 현재 더 프린스 호텔 별관으로 운영 되고 있으며 도쿄도 유형문화재로도 지정되었다. 호텔의 재건축 당시 약 5,000톤의 건물을 해체하지 않고 트레일러를 이용하여 통째로 지금의 장소로 옮겨 화제가 되었다.

英親王・李垠(イ・ウン) (1897～1970) は高宗の第七子で、1907年に兄の純宗が即位して皇太子となったが、朝鮮総督初代統監だった伊藤博文が留学という名目で日本に強制的に連れて行った。日本の皇族である梨本宮方子(韓国名-李方子)と政略結婚した後、日本軍の将校となり、1926年の純宗の死去後大韓帝国第2代李王に即位したが、またすぐに日本に連行された。1963年11月22日に韓国に帰国したが、病状が悪化し、1970年5月1日に死亡した。この邸宅は、1930年に建てられた英親王の日本での住まいで、宮内省の北村耕造と権藤要吉が洋風に設計した。第二次世界大戦後は参議院議長官邸として使われ、現在は赤坂プリンスクラシックハウスとなっている。東京都の有形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る。赤坂プリンスホテルとして再建した当時、約5000トンの重量の建物を解体せずにトレーラーを使って今の場所に移築して話題になった。

